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94년 국내 경제

俞柄圭*

9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4.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94년에는 93년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이루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여, 94년 경제 성장률은 93년보다 1% 포인트를 약간 웃도는 5.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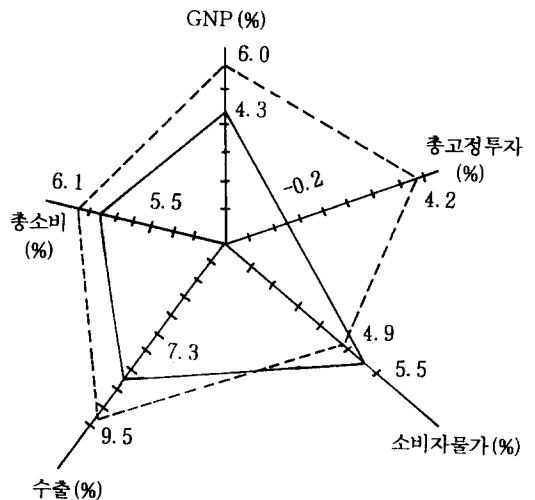
침체 국면이 지속된 93년 국내 경제

새정부가 들어선 93년에는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93년 국내 경제는 경기 침체 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93년 경제 실적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당초 93년 국내 경제 예상치와 93년 3/4분기까지의 경제 실적을 근거로한 93년 실적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 차이는 거의 2%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93년 경제 성장률은 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의 예측 오차가 크게된 것은 소비, 투자, 수출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경제 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부문의 실적 추정치가 예상치를 훨씬 벗어난 점은 올해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다. 당초 예상된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4.2%였으나, 93년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92년의 -1.8%에 이어 -0.2%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총고정투자가 이처럼 부진하게 된 것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투자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림 1> 93년 예측치와 실적 추정치 비교



*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론 경제 전공.

주: —는 93년 추정치이고, ---는 93년 당초 전망치임.

93년에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국내 금융 비용의 과다 부담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3년에 들어서 국내 실세 금리인 회사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92년 말의 16.2%에서 93년에는 13.3%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의 금리 수준인 3~4%보다 3 배나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 경제가 구조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의 위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점도 투자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신정부의 불투명한 경제 개혁 정책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점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투자 심리의 위축에 따라 연초에 계획한 투자조차도 제 때 실행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 사업 투자가 정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투자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93년 건설투자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통해 공공 사업 투자를 앞당겨 추진 한다는 방침 등에 의해 큰 폭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정부 재정 자원의 부족에 의해 이 역시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예상치를 밑돈 수출 증가율 역시 해외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되었다. 연초에 예상 수출 증가율은 8~9% 수준이었으나 실적 추정치는 7%대이며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기의 침체와 국내 상품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현상이 중국과 아시아 특수,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의 실현을 제약하였

기 때문이다.

총소비 역시 정부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 둔화·지가와 주가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세의 약화에 의해 예상치인 6%보다 낮은 5%대를 기록하여 이 역시 국내 수요를 큰 폭으로 부추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경제 성장률 저하 속 물가 상승

93년 경제의 특징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물가 상승 폭은 예상치를 웃돈 데 있다. 93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당초 정부의 물가 억제선인 5%를 상회하는 것이다.

93년 국내 물가가 고통 분담 정책에 의한 임금 상승의 억제, 제품이 동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높게 된 것은, 공공 요금의 인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93년에는 엔화 강세, 연초 원자재가 상승, 물류 비용의 증가 등에 의해 공산품 물가의 상승 폭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경제 성장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선택의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4년 국내외 경제 여건은 다소 개선

세계 경제 여건

94년의 세계 경제 여건은 93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나 WEFA와 같은 예측 기관들에 의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과거 경기 회복기의 평균 성장률인 4~5%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93년의 2%대보다는 높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개도국의 무역 자유화 폭의 확대에 의해, 세계 교역 증가율도 93년의 3~4%대 증가에서 94년에는 5~6%대로 증가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 국내 경제에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이 되었던 엔화 가치의 상승 현상은, 일본의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해소되지 않는한 94년에도 지속되어 엔화는 달러당 100~110엔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93년 국제 원유 가격은 WTI 기준으로 92년의 20.5달러 보다 하락한 배럴당 평균 1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9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 동안 지속된 중국 특수, 94년에는 중국 경제의 과열 현상에 따르는

중국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에 의해 약화되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의해 국제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여건

94년 국내 경제 여건은 임금, 금리, 지가와 같은 경제 변수들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정책이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임금 안정에 대해 勞使政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점, 금리는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지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양상이 94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이 각 경제 변수의 안정화 예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요인들은 금융 실명제와 금리 자유화 그리고 업종 전문화 정책과 같은 제도 개혁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4년에 들어서도 정부의 경제 제도 개선 정책이 93년

<표 1> 세계 경제 여건 전망

성장	교역량	원유가	금리	엔/\$	중국특수
★	★	★	▲	★	▲

주: 1) ★; 긍정적 요인, ▲; 부정적 요인
2)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의미함.

<표 2> 94년 국내 경제 여건 전망

임금	금리	지가	SOC 투자 확충	제도개선
★	★	★	★	◆

주: ★; 긍정 요인, ◆; 중립 요인

년처럼 불안하고 충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94년에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 효과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경제 내에 또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수단의 선택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4년 경제 성장률은 5%대가 될 듯

이상의 국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94년 국내 경제는 위협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94년에는 안정된 금리와 임금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정부 정책에 의한 기업의 경영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한 94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93년의 감소세에서 3%대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 예상된다.

94년 건설투자 역시 건설 규제 조치의 지속적인 완화에 의해 민간 건설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6% 내외의 증가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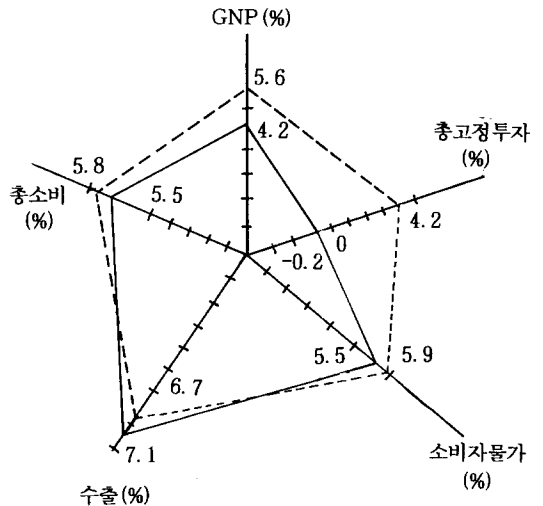
94년의 민간 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자산 가치의 하락세 지속 등이 소비 수요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실명제 이후 풀린 통화가 소비 수요로 전환될 경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은 93년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 소비는 94년에도 93년과 마찬가지로 6% 대의 신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총소비는 93년의 5.4%보다 약간 높은

5.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수출은 세계 경제 여건의 개선에 의한 증가 요인이 크나, 94년에도 국제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가율은 93년의 7.1%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해 볼 때 94년 국내 경제는 93년에 비해 건실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94년 국내 경제의 건실화 정도는 국내 경제 주체들의 기회 포착과 활용 능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경제 원리대로 투명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자율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경제 주체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94년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도 높은 경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93년 추정치와 94년 전망치의 비교



주: —는 93년 추정치이고, ---는 94년 전망치임.